ECB의 국채수익률 상한선 도입 가능성

이정환 선임연구원

국채수익률 상한선 도입과 함께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로존 위기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다수의 언론[1]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의 국채수익률과 독일 국채와의 수익률 격차(스프레드)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스프레드가 하락할 때까지 ECB가 해당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는 방안이 검토 중임.
- ECB는 국채수익률 상한선 도입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실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또한, 재정위기국 국채 매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독일 정부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ECB의 국채 매입 가능성이 높아짐.
  - ECB 집행위원회의 독일 이사인 요르그 아스무센은 최근 ECB의 국채 매입을 지지한다고 밝힘.

ECB가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입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은 다소 하락함.

-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일에는 전일대비 0.15%p 하락하였고 21일에는 전일대비 0.071%p 하락하여 6.211%를 기록
-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21일 현재 전일 대비 0.114% 하락한 5.659%를 기록

그러나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은 ECB의 국채 매입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채수익률 상한선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

- 위기국 국채 매입은 독일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기국은 계속 부채를 불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1) 8월 19일 ECB가 유로존 국가의 차입 비용 절감을 위해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채 매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독일 슈피겔 보도 이후 ECB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8월 21일 영국 텔레그라프는 ECB의 금융공학자들이 다른 대책과 더불어 국채수익률 상한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다시 보도함.

- 국채 매입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중앙은행의 자산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 또한, 하반기 독일 경기 둔화 전망은 국채수익률 상한선 도입 입지를 약화시킴.

전문가들은 국채수익률 상한선 도입과 ECB의 국채 매입은 독일 정부와 중앙은행 간 힘겨루기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일각에서는 독일 총리와 아스무센 ECB 이사의 지원을 받게 된 ECB 총재가 분데스방크의 경고를 무시하고 국채매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
  - 분데스방크는 ECB에 자문을 할 수는 있어도 정책을 강제할 권한은 없음.

(Bloomberg 등, 8/22)